

## 『濟衆新編』 「養老」에 나타난 식치 연구 A Study on Sikchi in the Yangno of Jejung Sinpyeon

이정화

한국한의학연구원

Lee Jeounghw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요약

『濟衆新編』의 「養老」 항목에 나타난 22개의 처방 중 식치 관련 죽처방 11개에 대하여 사료와 처방 내용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 1. 서론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단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방들을 보강하여 편찬한 조선 후기 관찬 의서이다. 8권5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된 항목은 70개이다. 『東醫寶鑑』에 기술된 항목에서 66개를 수용하고 권7의 痘疹, 麻疹, 養老와 권8의 藥性歌, 총 4개 항목은 『濟衆新編』의 편자 강명길이 증보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는 『濟衆新編』의 편찬 의도대로, 『東醫寶鑑』의 복잡하고 난해한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들을 보강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서로 만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본론

### 2.1 『濟衆新編』 「養老」

『濟衆新編』卷7에는 「養老」가 독립項目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한의학 대표 문헌인 『東醫寶鑑』에서도 기술되지 않은 항목으로 독창적인 예이다. 『濟衆新編』에서처럼 「養老」를 독립된項目으로 표출하여, 노인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일반 성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실제 처방을 기술한 경우는 조선의 의학 문헌 중 『濟衆新編』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濟衆新編』卷7에 실린 「養老」는 전체 내용을新增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 중 한 가지 處方인 '五果茶'는 俗方에 전하는 것을 인용하였으며, 그 외의 처방은 康命吉 자신의 經驗方을 新增한 것으로 보인다.

「養老」에서는 노인의 질병의 특성과 보양에 대해 '老人血衰'과 '老人保養'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老人血衰'에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병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老人保養'에는 노인들에게 쓴 약과 독한 약

을 써서는 안되며 계속 노인이 허약해지면 된죽으로 영양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22개의 處方이 나오는 데, 이중 50%인 11개는 粥으로 된 處方으로 앞서 기술하고 있는 '老人保養'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養老」항목에 기술되고 있는 22개의 처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濟衆新編』 「養老」 항목의 처방명

「養老」處方	
소임죽(蘇荏粥)	삼선죽(三仙粥)
굴행환(橘杏丸)	연충음(連蔥飲)
연자죽(蓮子粥)	행도죽(杏桃粥)
소행죽(蘇杏粥)	진자죽(榛子粥)
산사죽(山査粥)	율자죽(栗子粥)
모과죽(木果粥)	홍시죽(紅柿粥)
백시죽(白柿粥)	이청음(梨靑飲)
계속음(桂粟飲)	의이음(薏苡飲)
영수당(寧嗽糖)	우골고(牛骨膏)
설리고(雪梨膏)	이봉고(梨礬膏)
계초정(桂椒錠)	오과다(五果茶)

『濟衆新編』에서 「養老」 항목의 독립은 正祖와 제 중신편의 편자 康命吉의 합작품으로,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임금을 시봉하면서 체험한 의약의 지식과 경험을 『濟衆新編』에 투영하였고, 당시 사회적 요인과 질병 사적 측면 또한 正祖의 의료정책과 효에 대한 관념이 종합되어 표출된 것이라 여겨진다.

『東醫寶鑑』이 건강지식을 보편화시키기 시작하면서, 『濟衆新編』은 인구의 증가와 생명의 연장으로 인한 만성병, 노인성 질환 등에 주목하는 보양의 개념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2 「養老」의 죽처방

「養老」의 죽처방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임죽(蘇荏粥), 삼선죽(三仙粥), 연자죽(蓮子粥), 행도죽(杏桃粥), 소행죽(蘇杏粥), 진자죽(榛子粥), 산사죽(山査粥), 울자죽(栗子粥), 모과죽(木果粥), 홍시죽(紅柿粥), 백시죽(白柿粥) 등 11가지 처방이다.

이 죽처방은 노인보양을 목적으로 기록된 처방으로, 노인이 병이 생겼을 때 쓴 약을 쓰는 것을 금하고 다섯 가지 곡식과 채소, 과일과 육류와 어류들과 순한 약으로 조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허약해지면 된죽으로 영양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노인의 병은 기혈을 보혈하는 것이 옳다고 제시하고 있다.

## 2.3 문헌 속 양노 죽처방

『濟衆新編』 「養老」 항목에 기록된 죽처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죽처방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는지, 어떤 증상이나 질병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양노 항목의 죽처방 11개중 연자죽(蓮子粥)과 울자죽(栗子粥) 2개의 죽처방 만이 검색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자죽(蓮子粥)은 연밥죽이라고도 하며 연꽃의 열매에서 속껍질과 심을 버린 알맹이를 삶아서 갈아 맷살과 함께 쑨 죽이다. 『제중신편』에서 언급하는 증상이나 병증은 노인의 갈증과 이질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의지를 강하게 하고 기운을 도와 귀와 눈을 밝게 하고 장부를 보호하고 기력을 배양하며 여러 가지 병을 없애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자죽은 연자(蓮子: 속껍질을 없앤 것) 6냥, 검실(芡實: 닦은 것) 4냥, 백복령(白茯苓) 3냥과 쌀뜨물 혹은 쌀 찌는 것을 넣어 만들어 먹는다고 일러두고 있다.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검색된 연자죽(蓮子粥)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9회, 『웅천일록(凝川日錄)』, 『전암집』, 『임원십육지』 정조지 제2장 전오지류의 죽 부분에 연자죽이라 하여 처방명 있으며,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음식 만드는법(治膳 上)의 밥·죽류(飯粥諸品)에도 연자죽이 기록되어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조 4년부터 10년 사이에 인조의 건강을 염려하여 내의원에서 인조 임금에게 올린 죽이거나 이를 논의하는 기록이다. 『웅천일록(凝川日錄)』의 기록 또한 시약청에서 인조 임금의 건강과 관련하여 연자죽을 자주 드시게 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열을 다스리게 하지는 내용이다.

이어 울자죽(栗子粥)을 살펴보면, 이는 밤죽이라고도 하며 밤을 삶아 거른 물이나 밤 가루를 푼 물에 쌀을 넣고 쑨 죽을 말한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된 울자죽의 기록은 『산림경제(山林經濟)』, 『수세비결』,

『임원십육지』 정조지(林園十六志)에 栗子粥으로 각 1회씩 보이며, 『증보산림경제』에는 乾栗粥 즉 말린 밤죽으로 기록되어있다. 『제중신편』에서 언급하는 증상과 병증은 노인의 기운을 도와 장위를 덥게 하며 모든 어지럼증과 손이 떨리는 것 힘줄과 살이 썩어거리는 것과 속이 메스꺼우며 입맛이 없고 기운이 허한 것과 嘔雜증과 풍비로 마비된 것, 반신불수 등을 낮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 3. 결론

조선후기 경제 사회적 안정과 위급한 질병의 안정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은 연장되었고 유교적 관점에서 효와 노인보양은 책임과 의무였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濟衆新編』 「養老」 편에 독립된 항목으로 노인의 병과 보양을 위해 죽처방이 실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궁중의 내의원에서도 임금의 건강회복과 치료를 위해 죽처방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養老」 편에 실린 11종의 죽처방 중 2종의 죽처방이 실제 치료와 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좀 더 면밀히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다면, 양노에 실린 11종의 죽처방 이외의 많은 죽처방의 실제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활용되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식치 개념의 죽처방에 대한 연구가 기대를 진행하고자 한다.

## ■ 참고 문헌 ■

- [1] 이정화 “濟衆新編 養老와 藥性歌에 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제22권, 제2호, pp.99-109, 2009.
- [2] 이정화 “濟衆新編 刊行과 頒賜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통권 34호, pp.131-153, 2009.
- [3] 강명길, 제중신편, pp.537-543, 여강출판사, 서울, 1992.
- [4]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